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94

#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

(마태복음 26:3~23, 마가복음 14:1~16,  
누가복음 22:1~13, 요한복음 13:4~30)

이제 유월절 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두가 축제 준비로 들떠있던 그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은밀하게 모였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질질 끌어봤자 시간 낭비요.  
당장 예수를 붙잡아서 없애 버립시다!”

“그럽시다! 당장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런데 그 때 누군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지금은 곤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를 붙잡아온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요.”**

**“하... 그것도 그렇겠군요 그럼 어쩐다...  
좋은 수가 없을가요?”**



**“대제사장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들어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 모임 자리를 왜 찾아왔을까요?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준다면  
여러분은 제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필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제자가 먼저 예수를 넘겨준다니!  
기회만을 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겐  
더 없이 반가운 제안이었죠!

“이 사람 이거,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구만! 오호호호!  
가야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 좀 챙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호호호.”

그들은 가롯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목적물을 달성한 가롯 유다는 기분이 좋아져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른 시간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두거라.”

“예.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님?”

“성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향하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니 한 집이 나타났죠.**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방을 찾고 계십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위층에 큰 방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정말로 위층에는 넓고 잘 정돈된 다락방이  
마련돼 있었어요.**



**“이야~ 이 정도면,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에 충분하겠는데?”**

**“그러네요! 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오자구요!”**

**몇 시간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례로 부르시고는 한 명 한 명  
손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 주님, 어찌 주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흙먼지로 발이 더럽혀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종들이 발을 닦아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주님! 이젠 제 발까지 닦아주십니까?  
종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란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실 바엔 차라리, 제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해지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가롯 유다’만 배배구요!**

유다는 속으로

**‘다 깨끗한 건 아니라고..?  
서, 설마... 내가 한 일을 알고 계신건가...?’**

이렇게 뜨끔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열 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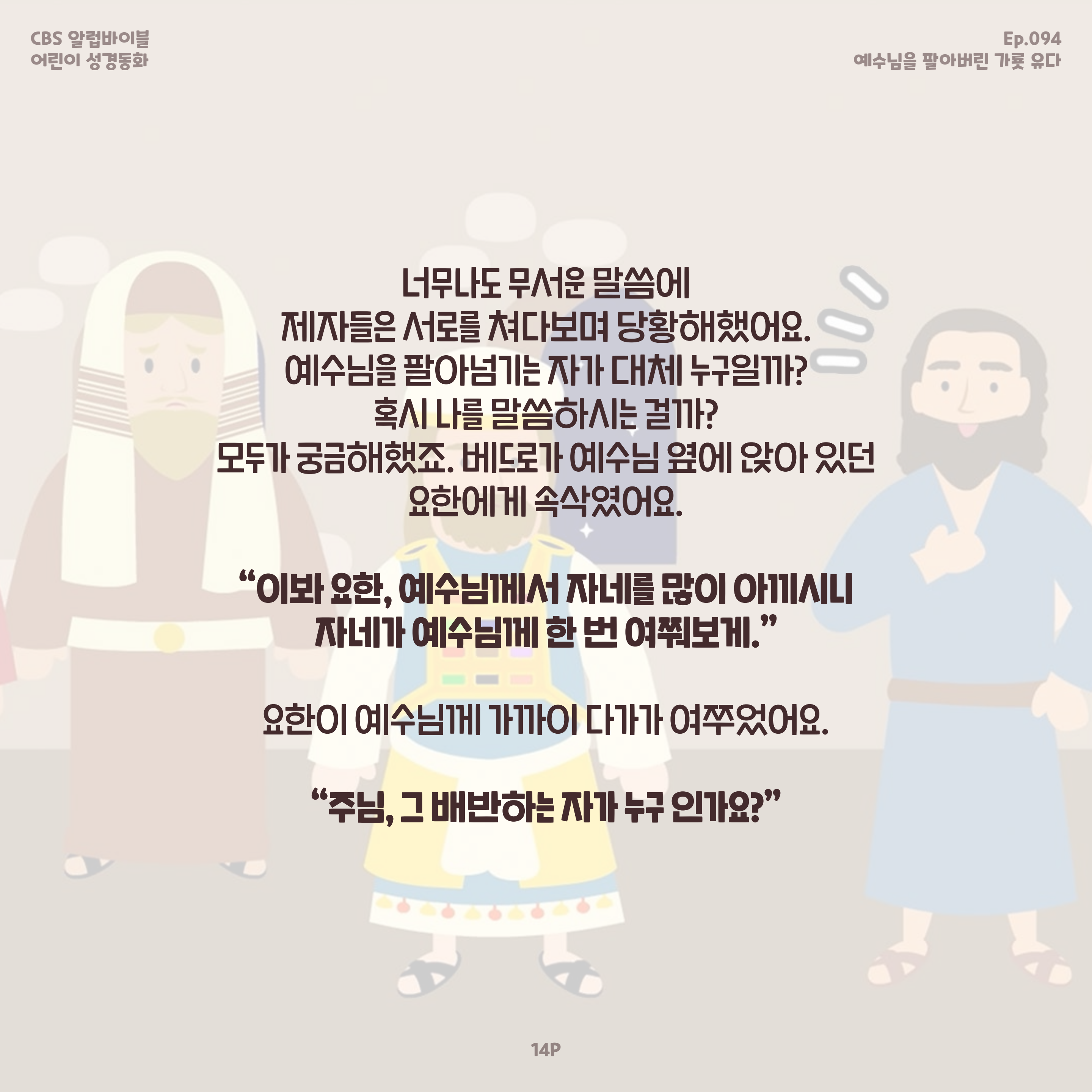
**“얘들아, 내가 방금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서로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알겠니?”**

예수님께서서는 겸손과 섬김의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또 말씀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해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대체 누구일까?  
혹시 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모두가 궁금해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던  
요한에게 속삭였어요.

**“이봐 요한, 예수님께서서 자네를 많이 아끼시니  
자네가 예수님께 한 번 여쭙보게.”**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여쭙었어요.

**“주님, 그 배반하는 자가 누구 인가요?”**

예수님께서서는, 빵 한 조각을 집어 접시에 찌크으시고는  
가롯 유다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유다야,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가서 하거라.”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만이 가득해져 있었죠.  
유다는 조용히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유다가 하려는 일이 뭐길래...  
이 시간에 보내시는 걸까...?”**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 뭘 좀 사오라고  
심부름시키셨나보지.  
그나저나 그 끔찍한 배신자가 대체 누구지...?”**

**그렇게 밤이 깊어졌어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해진 그 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